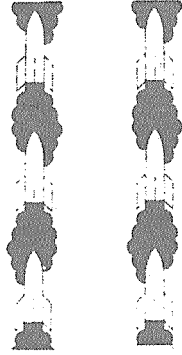


電子工業日誌



〈1990. 12. 1~12. 27〉

12. 1 : 輸出公團, FA조합의 '91년도 예산규모를 작년보다 7 배나 많은 6억 7,900만원으로 책정, 시험단계에 있던 FA조합을 본격 운용키로.

12. 4 : 産技振興協, 전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업기술개발실태조사」에 따르면, '89년 중 기술개발 투자비는 '88년보다 27.7% 증가한 1조9,501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장률은 '88년 현재 미국의 6%, 일본의 11.1% 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이며 '80년대 연평균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28%, 미국 9.5%, 일본 14.8% 보다 높아 기술투자가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절대규모면에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5 : 遞信部, '93년까지 한국형 ISDN을 구축. '94년부터 상용화하는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산업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나아가기로.

12. 6 : 通信公, '91년중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 4대 도시에 데이터교환용 패킷교환기를 설치, '92년부터 운용키로.

12. 6 : 科技處, 특정연구 개발사업으로 얻어낸 기술개발 결과를 기업에 이전시켜 징수한 기술료가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12. 11 : 特許廳, 특허 및 실용신안 발명과 관련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90년 10월말 27건 1억 7,934만원을 기록 '90년 말까지 35여건에 이를 전망이라고.

12. 12 : 産技協, 「'91년도 기술개발 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의견」을 통해 과학기술투자 부문의 정부대 민간부담률이 '87년 28대72, '88년 26대74로 오는 '96년 목표치 30대70에 비해 정부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져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12. 14 : 商工部,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신제품사업화 자금 2차분 29억원을 10개 업체에 배정했다고.

12. 14 : 政府, 소프트웨어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차적으로 20억원을 투입 과기원 부설 시스템공학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92년까지 부산, 광주, 대덕, 대구 등 지방도시에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12. 15 : 政府, 대소련경협자금 30억 달러 가운데 19억 달러는 차관형태로, 6억달러는 소비재 수출 결제 대금으로 각각 지원키로 하고 기업들로부터 교역 및 합작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91년 1월까지 기업별 경협자금분배 및 투자대상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2. 15 : 情報産聯, 185개의 컴퓨터 이용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S/W 조달관리 실태조사결과

'89년 S/W를 자체개발해 사용한 업체가 131개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고. 이 비중은 '88년의 82.7%보다 크게 낮아지고 외주개발의 비중이 22.4%에서 30.3%로 높아진 것으로 외주개발이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2. 18 : 通信公, '91년 중 HDTV 전송 및 방송기술개발에 나서고 대용량 국산 전자교환기인 TDx-10 개발을 완료, 상용화 하기로.

12. 19 : 遞信部, 현재 전자제품 및 정보기에 국한하고 있는 전자파장해(EMI) 검정대상을 자동차나 산업용 공작기계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 20 : JETRO (일본무역진흥회), 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91년 세계교역규모의 실질증가율 5.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세계교역총액은 3조 3,5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12. 20 : OECD, 미·일·독·프·영국 등 주요 서방선진국 경제는 '91년에 가중되는 인플레이압력, 금융시장 불안정 및 고유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12. 22 : 遞信部, 전파이용급증에 대비키 위해 '91년초부터 FM·협대역 무전기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12. 24 : KIET, 수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의 수출상품 고부가가치화와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12. 26 : 遞信部, 중국, 소련 등 북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홍콩의 '97년 중국반환 등 환경변화를 계기로 서울을 국제정보통신 기지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이라고.

12. 27 : 商工部, '91년도 중소기업 선진화업체로 585개 희망 업체를 접수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등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 12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